

2024 과테말라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 | |
|------------|--------------------------------|----|
| I |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
| 1. | 개요 | 4 |
| 가. | 시장전망 | 4 |
| 나. | 주요 경제지표 | 4 |
| 2. |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6 |
| 가. | 신정부 출범으로 공공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 재개 | 6 |
| 나. | 한-중미 FTA 과테말라 추가 가입 협상 타결 | 7 |
| 다. | 높은 미국 의존도로 둔화됐던 경제 회복 | 8 |
| II | 비즈니스 환경분석 | |
| 1. |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0 |
| 2. | 시장 분석 | 15 |
| 가. | 시장 특성 | 15 |
| 나. | 교역 | 16 |
| 다. | 투자 | 20 |
| 라. | 프로젝트 | 23 |
| 3. |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24 |
| 가. | 교역 | 24 |
| 나. | 투자 진출 | 27 |
| 다. | 협력 유망 분야 | 31 |
| III | 진출전략 | |
| 1. | PEST 분석 | 34 |
| 2. |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35 |
| 3. |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36 |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 42 |
|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 45 |
| 첨부 3. |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46 |
| 첨부 4. |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47 |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속 과테말라 내수시장 소비 및 해외송금 유입 성장세 지속. 과테말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부패, 치안 불안, 경제 인프라 부족 등의 개선을 공약한 신정부 출범('24.1.14) 따라 경제지표가 소폭 호전 기대

▣ 2024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망, 전년도 3.0% 대비 소폭 상승

- '23년 러-우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및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전년 대비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이 '24. 1. 14부 출범하는 신정부의 다양한 경제 인프라 및 사회문제 개선 정책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22년 기준 과테말라 GDP의 19.3%를 차지하는 해외 이민자의 對本국 송금이 '23.9월 기준 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 내수시장 소비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과테말라의 1위 수출목적국인 미국 시장의 소비 둔화가 '24년 초까지는 이어져 과테말라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나. 주요 경제지표

| 주요지표 | 단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인구 | 백만 명 | 16.9 | 17.3 | 17.6 | 17.9 | 18.3 | 18.7 | 19.0 | 19.4 |
| 명목GDP | 십억 달러 | 72 | 73 | 77 | 78 | 86 | 95 | 103 | 111 |
| 1인당 명목GDP | 달러 | 4,240 | 4,238 | 4,385 | 4,341 | 4,702 | 5,080 | 5,417 | 5,701 |
| 실질성장률 | % | 3.1 | 3.4 | 4.0 | -1.8 | 8.0 | 3.1 | 3.0 | 3.3 |
| 실업률 | % | 2.1 | 2.8 | 2.5 | 4.7 | 3.6 | 2.6 | 2.9 | 2.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5.7 | 2.3 | 3.4 | 4.8 | 3.1 | 9.2 | 3.1 | 4.8 |
| 재정수지(GDP대비) | % | -1.4 | -1.9 | -2.2 | -4.9 | -1.9 | -1.7 | -1.8 | -1.6 |
| 총수출 | 백만 달러 | 9,650 | 9,644 | 9,919 | 10,127 | 12,414 | 14,282 | 13,717 | 14,841 |
| (對韓 수출) ^a | " | 112 | 67 | 64 | 78 | 138 | 323 | N/A | N/A |
| 총수입 | " | 16,442 | 17,629 | 17,885 | 16,441 | 23,300 | 28,468 | 29,000 | 30,762 |
| (對韓 수입) ^a | " | 241 | 237 | 222 | 203 | 384 | 131 | N/A | N/A |
| 무역수지 | 백만 달러 | -6,792 | -7,985 | -7,967 | -6,314 | -10,887 | -14,186 | -15,284 | -15,921 |
| 경상수지 | " | 857 | 650 | 1,822 | 3,918 | 2,113 | 1,320 | 1,965 | 2168 |
| 환율(연평균) | 현지국/US\$ | 7.34 | 7.73 | 7.70 | 7.80 | 7.72 | 7.85 | 7.83 | 7.81 |
| 해외직접투자 | 억 달러 | 1.96 | 2.01 | 1.80 | 1.49 | 4.76 | 3.89 | N/A | N/A |
| 외국인직접투자 | 억 달러 | 11.30 | 9.81 | 9.76 | 9.35 | 34.62 | 13.52 | N/A | N/A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EIU, a) KITA 무역통계 b) UNCTAD(*23.9)

- ▶ '24년 1월 14일부터 신임 대통령(Arevalo)의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며, 그동안 보류됐던 신규 정책 추진과 정부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
- ▶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추가 가입 협상 타결이 '23.9.5에 이루어지면서 '23년 말까지 정권 교체 전에 정식 FTA 추가 가입 서명 후, '24년 신정부 출범 후 새로운 국회 통과 및 비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한-과테말라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24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 회복이 기대되면서 과테말라 경제 역시 전년 대비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가. 신정부 출범으로 공공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 재개

▣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신규 정책 추진 및 경제 인프라 구축 확대 예정

- 2024년 1월 14일부 신임 대통령(Bernardo Arevalo)의 4년제 임기 시작으로, 2023년 선거의 해 동안 보류되어 있던 각종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의 10대 핵심 공약은 ①사회발전, ②보안, 지원 및 사회 보장, ③영양실조와의 싸움, ④경제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 ⑤기술과 혁신, ⑥살고 싶은 나라의 민주 안보, ⑦환경보호, ⑧국경 없는 시민권, ⑨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기능, ⑩2056년 과테말라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구성됨

▣ 국회에서의 타 정당 협조 없이는 신규 정책 통과 난항

- 신정부는 비록 대선 승리는 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적어 절대 다수당이 없는 현지 정당들과의 연맹을 통한 주요 정책 승인이 필요
 - 국회의원 160명 중 대통령 소속 여당(Semilla당) 의원은 23명에 불과한 제3당으로, 반대당이었던 제1야당인 Vamos당(39명)과 대선 결선 경쟁당이었던 Une당(28명) 보다 의원 수가 적음
 - 따라서 남은 14개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신정부의 정책들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임
- 특히 지난 정권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공약한 신정부는 아직 국회에서의 의원 수가 더 많은 과거 부정부패 가담 인사 소속 정당들의 반대를 타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나. 한-중미 FTA 과테말라 추가 가입 협상 타결

▣ 과테말라, 한-중미 FTA 정식 발효 후 재참여를 위한 협상 타결 완료('23.9.5)

-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18.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19.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가 각각 발효되어,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FTA 전체 발효됨
- 중미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는 일부 산업계(철강, 제지, 신발, 음료 등)의 반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서명식('17.3월)에 불참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22년 양측간의 이견이 있던 품목에 대한 일부 양허안으로 최종 협상 타결이 마침내 이루어져 지난 '23.9.5에 협상 타결 선언식 개최
 - ① 타결 선언 이후 한-과 양측이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협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정
 - ② 한국 측 국내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연말~내년 1월 초에 정식 서명식 진행 ('24.1.14 정권 교체 전에 현 정권과 서명 추진 중)
 - * 중미 FTA 가입 절차상 정식 서명 전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승인이 필요
 - ③ 마지막으로 서명이 잘 끝나면 나라별로 의회 비준 절차 돌입 후 의회 통과 시 공식 발효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에 따른 기대 효과

-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 한국의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 예정
 -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기로 합의
 - *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수입은 80%(9,791개 품목)가 즉시 관세율 0% 적용받을 예정이며, 무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나머지 20%(1,882개 품목)도 향후 3년에서 1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면될 예정(총 11,673개 품목)이며, 과테말라 수입은 56.2%(3,752개 품목)가 즉시 관세율 0%를 적용받고 나머지 43.8%(2,925개 품목) 역시 3년에서 1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감면될 예정(총 6,677개 품목)
- 이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
 - ① 과테말라는 미국 및 중미 등 인근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으나,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석유·화학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의약품 등)과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의약품 등)이 상당수 일치하여, 한국 측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 혜택 및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활용한 교역 및 미주 지역 진출 확대 기대

* 주요 수출품목(한국→과테말라) :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면사 등

* 주요 수입품목(과테말라→한국) : 커피, 바나나, 니켈광, 금속 스크랩 등

- ② 또한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 간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인접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된 제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한-중미 FTA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많이 진출한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원료 조달 등 한국-중미 6개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③ 과테말라가 기존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전망
- * 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등 금지,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
- ④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과테말라 정부 조달 시장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도 예상
- ⑤ 아울러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EU 등 미주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의 FTA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

다. 높은 미국 의존도로 둔화됐던 경제 회복

▣ 미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영향

-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과테말라 경제성장률은 '24년 상반기까지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의 對미 수출액이 '23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14.19% 감소
 -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년도 3.0% 대비 3.3%로 상향된 상황으로, '24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 회복이 기대되면서 과테말라 경제 역시 전년 대비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4. 1. 14부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인프라 개선을 공약한 신정부 출범 및 '24년 중 과테말라 한-중미 FTA 추가 가입 비준으로 정치·경제·산업·교역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가. 정치 환경

▣ 신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경제 활성화 기대

- 고질적인 정부의 공공개발 부족과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당선인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정체되었던 공공투자 및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공공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
 - 현 정권 말기에 각종 과세 및 행정·통관 지연으로 공식·비공식적인 세수를 징구하는 현상이 신정부 출범으로 호전되면, 외투기업 투자와 현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선·총선·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과테말라 특성상 '23년에 보류되어 있던 각종 서민층을 위한 인프라, 병원, 인터넷망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여당이 전체 160개 의석 중 23석만을 차지하고 있어 각종 정책 추진 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경제 환경

▣ 친기업 및 대외 개방 정책 기조 유지 예상

- 신정부 출범에도 전통적인 친기업 정책과 미국을 의식한 개방적인 대외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이민 가족들의 외환 송금과 '24년 하반기부터 기대되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과테말라 내수 소비 증가와 對미 수출 회복세로 경제성장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과테말라에서 오는 미국 이민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과테말라 경제 부양 원조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 수는 2021년에 110만 7,000명이 기록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과테말라를 포함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중미 3개국으로부터 효과적인 이민 문제 해결이 국가 민간투자 활성화, 치안 및 법치주의 향상, 빈곤 감소, 경제 발전에 있다고 보고,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 추진
 -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미국에서 과테말라로의 외환 송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對미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 과테말라 인구의 약 33%인 600만 명이 해외 송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2년 해외 송금액이 과테말라 GDP의 약 19.3%를 차지하면서 수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함
 - 다만, 미국 경제 둔화로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이 또한 과테말라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 산업 환경

▣ 과테말라 6대 가문이 장악한 산업 진출 어려움 지속

- 과테말라에 6대 재벌가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경우 수십 년이 넘게 장악해오고 있고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어 해외 기업이 이들과의 협력 없이 관련 분야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주요 산업 분야는 유통업(백화점 및 슈퍼마켓 체인), 금융업(은행), 통신업(통신사), 농업(설탕 및 부산품), 음료(맥주, 음료 및 생수), 요식업(Pollo Campero 치킨 프랜차이즈), 시멘트 등이 대표적임
 - * 해당 가문들의 산업 범위를 침범할 경우 심한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신상의 위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정치권과의 연계도 강하여 한-중미 FTA 협상 시에도 관련 분야 품목(음료, 시멘트) 등은 관세 혜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것을 요청

- 2022년 미국 경제 둔화로 줄어들었던 對미 수출이 회복되면서 침체됐던 과테말라 섬유 산업도 일부 회복될 전망
 - 미국의 중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중미 발전 지원 정책과 미국의 의류 소비 회복으로 과테말라 핵심 산업인 섬유산업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참고사항 : 과테말라 6대 가문

① **빠이스 가문(Familia Paiz)**

- 1928년에 신발 유통으로 시작한 사업이 Paiz, Maxi 등으로 슈퍼마켓 체인으로 확장하였으며, 2010년에 Walmart에 판매함. Banco Custalan 은행으로도 사업 분야 확장
- 한때 연 매출 22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며 과테말라에서 1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기도 함

② **로페스 에스트라다 가문(Familia Lopez Estrada)**

- Mario Lopez Estrada는 과테말라 최초의 억만장자로 1898년에서 1920년간 강경 집권을 했던 Manuel Estrada Cabrera 전 대통령의 손주이기도 함. 건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인프라 및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후 1993년부터 통신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TIGO사의 오퍼로 1997년까지 독점을 누리며 많은 재산을 축적함
- Onix그룹을 창립하여 약 6,000명의 과테말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TIGO 통신사 연 매출액이 12.5억 달러에 달함

③ **에레라 가문(Familia Herrera)**

- 1849년부터 Manuel Maria Herrera가 시작한 설탕과 농산물 기업은 Pantaleon Sugar Holdings를 설립하고 1,300만 톤의 설탕 및 부산품을 생산하고, 커피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 또한, 과테말라 주요 백화점 사업과 은행(Banco Agromercantil), 통신사(구 Telefonica, 현 Claro) 지분도 보유
- 연 매출이 약 1억 달러에 달하며, 약 2만 명의 과테말라 일자리 창출

④ **까스티요 가문(Familia Castillo)**

- Castillo 가문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내 약 9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Cerveceria Centroamericana라는 중미지역 독점 맥주기업을 운영. 또한, 과테말라 대표 은행인 Banco Industrial과 Banco G&T Continental을 설립하기도 함
- 연 15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며 약 2만 2,500명의 과테말라 일자리 창출 중

⑤ **꾸피에레스 보시 가문(Familia Gutierrez Bosch)**

- 중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인 Pollo Campero라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중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도 총 300여 개의 지점을 운영 중
- 연 매출액 4억 달러에 과테말라에서 약 2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

⑥ **노베야 가문(Familia Novella)**

- 1899년에 중남미 최초의 시멘트 공장 중 하나인 La Pedrera를 설립했으며, Cementos Progreso라는 기업으로 100년 넘게 과테말라 시멘트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철강, 에너지 및 석유 운송 사업도 병행 중. Banco Industrial 및 Banco Agromercantil 주주이기도 함
- 연 매출이 약 4억 달러에 달하며, 2,400명의 과테말라 일자리를 창출

라. 정책·규제 환경

▣ 정책·규제 일반

-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주력산업인 봉제업(임가공)의 경우 계속된 인건비 상승,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 매력도 점차 상실
- 투자기업 세제 혜택 축소 및 조세 개혁 움직임 등으로 기업 운영 부담 가중
 - 마킬라법(28-89)이 소멸되면서 대체법안인 긴급고용법(19-2016)이 시행 중이나, 예전 대비 임가공업체 대상의 혜택이 많이 축소된 상황
 - 자금 세탁 범죄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추적법이 전격 시행('17년 2월)되었고 국세청의 기업 회계·세무 감사가 강화되고 있음

▣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 2032 장기 국가발전계획(K'atun, Nuestra Guatemala 2032)
 -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개발과 관련된 전 분야의 개발계획과 전략을 집대성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서이며, 대통령 직속 기획청(SEGEPLAN)이 총괄
 - * 빈곤 퇴치, 사회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의 장기 국가개발전략('12~'32, 20년)
 - 지방 균형발전, 서민 복지증진, 국가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개발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 투자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국가정책 및 시행계획이 여기서 파생

▣ 중미 경제통합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 시행

- 중미 6개국은 SICA¹⁾ 창설 이래 SIECA²⁾를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내 생산 재화에 대해서는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준이나 앞으로는 관세동맹을 거쳐 EU와 같은 통합 경제를 구축하고자 함
 - '19.5월부터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기존에 수기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3종의 세관수출신고서를 DUCA³⁾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각 국가의 세관 분야 시스템을 SIECA에서 개발한 DUCA 플랫폼에 연결해 세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

1)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8개국) : 과테말라, 벨리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2)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회원국(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중미 단일 관세 신고서(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DUCA)

-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경우, 관세동맹을 맺고 DUCA보다 진전된, 국내 세금(부가세) 납부 기능이 포함된 FyDUCA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역시 동 협정 가입 절차를 밟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과테말라 양자·다자협정

- 시장 개방, 수출 및 투자 진흥에 방점을 둔 친FTA 입장을 견지하고 FTA 및 관세협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 개방을 시도하고 있음
 - 현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23.9.5에 협상 타결이 선언되어 정권 교체 전 연내 정식 서명 추진 중으로, '24년 중에 신정부 출범 이후 국회 통과가 되어 발효될 것으로 예상

〈양자·다자협정 체결 현황〉

| 발 효 | | | | 진행 중 | | |
|-------------------|-----------|-----------|-----------|---|--------------|--|
| ① FTA(양자·다자) | | | | ① FTA(양자·다자) | | |
| 국가 | 구분 | 체결일 | 발효일 | 국가 | 구분 | 단계 |
| 도미니카 | 다자(중미) | '00.5.18 | '01.10.15 | 캐나다 | 4자(과·엘·온·니) | 협상 중(중단) |
| 멕시코 | 다자(중미) | '11.11.22 | '13.9.1 | 페 루 | 양자 | 체결('11.12.6) |
| 파나마 | 다자(중미) | '02.3.6 | '09.6.22 | EFTA (스위스·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다자(중미) | 체결('14.11.17) |
| 미 국 (DR-CAFTA) | 다자(중미) | '04.8.5 | '06.7.1 | 한 국 | 다자(중미) | 협상 타결 선언 ('23.9.5) |
| 대 만 | 양자 | '05.9.22 | '06.7.26 | ② 관세동맹 | | |
| 콜롬비아 | 3자(과·엘·온) | '07.8.9 | '09.11.12 | 국가 | 구분 | 단계 |
| 칠 레 | 다자(중미) | '07.12.7 | '10.3.22 | 엘살바도르 | 3자(과·엘·온) | 체결('18.8.27) *엘살바도르 국회 비준 완료('18.7.20) |
| E U | 다자(중미) | '12.6.29 | '13.12.1 | ③ 관세협정 | | |
| ② 관세협정 | | | | 국가 | 체결일 | 발효일 |
| 베네수엘라 | | | | '85.10.30 | '86.4.10 | |
| 쿠바 | | | | '99.1.29 | '01.5.18 | |
| 벨리즈 | | | | '00.6.20 | '10.4.4 | |
| 에콰도르 | | | | '11.4.5 | '13.1.1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 '11.7 | '15.2.6 | |
| ③ 관세동맹 | | | | 국가 | 체결일 | 발효일 |
| 온두라스 | | | | '15.2.26 | '17.6.26(정식) | |

자료: 과테말라 외교부('23.10)

4) 중미 단일 세금 및 관세 신고서(Factura y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FyDUCA)

2

시장 분석

※ 중미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를 통해 중미시장권을 공략할 수 있으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 및 한-중미 FTA 비준 이후 수출 증가 모멘텀 활용 필요

가. 시장 특성

▣ (교역) 중미 최대 시장이며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

- 과테말라는 중미 GDP의 28%, 인구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과테말라는 평균 관세율 2.7%로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및 엘살바도르 가입 추진으로 중미시장 통합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 치안 불안, 對미 의존, 빈곤 등 사회적 불안정성 내포

- 극도의 치안 불안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이며,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모두 세계 최상위권 살인율 기록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수출입의 높은 對미 의존도 및 미국 거주 과테말라인(120만 명 추산) 본국 가족 송금액이 GDP의 19%를 상회
- 빈곤, 재정 부족으로 정부 주도 또는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모멘텀이 절실하여 정부 조달 수요 및 개발협력 분야 의제 발굴/지원 수요 다대

나. 교역

▣ 수출입 동향 일반

- '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수출입 모두 회복세 유지
 - 주요 수출품인 커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규모는 유지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징상 수입 증가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 동향〉

| 구 분 | 2021 | 2022 | 2023.7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수 출 (백만 달러) | 13,620 | 15,654 | 8,744 | -8.92 |
| 수 입 (백만 달러) | 26,608 | 32,124 | 17,490 | -7.21 |
| 교역수지 (백만 달러) | -12,988 | -16,470 | -8,746 | -5.43 |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 '23년 7월 기준 국별 수입은 미국(30.6%), 중국(18.2%)*, 멕시코(10.8%) 순으로 나타남
 - * 중국은 '17년부터 멕시코를 제치고 과테말라의 제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미국 및 멕시코 등 FTA 체결국,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수입량이 많은 편이며, 對한 수입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對한 수입의 경우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 순위 | 국 가 | 연도별 수입액(백만 달러) | | | 비중(%) | | | 증감률 ('23.7/'22.7, %) |
|----|-------------|----------------|------------|------------|------------|------------|------------|--------------------------|
| | | 2021 | 2022 | 2023.7 | 2021 | 2022 | 2023.7 | |
| 1 | 미국 | 8,105 | 10,259 | 5,356 | 30.5 | 31.9 | 30.6 | -14.2 |
| 2 | 중국 | 4,940 | 5,856 | 3,188 | 18.6 | 18.2 | 18.2 | -3.8 |
| 3 | 멕시코 | 2,705 | 3,254 | 1,881 | 10.2 | 10.1 | 10.8 | -2.2 |
| 4 | 엘살바도르 | 966 | 1,047 | 586 | 3.6 | 3.3 | 3.4 | -5.5 |
| 5 | 일본 | 686 | 695 | 458 | 2.6 | 2.2 | 2.6 | 14.8 |
| 6 | 코스타리카 | 670 | 812 | 447 | 2.5 | 2.5 | 2.6 | -2.8 |
| 7 | 콜롬비아 | 531 | 660 | 371 | 2.0 | 2.1 | 2.1 | -13.1 |
| 8 | 브라질 | 470 | 767 | 360 | 1.8 | 2.4 | 2.1 | 17.7 |
| 9 | 독일 | 446 | 518 | 344 | 1.7 | 1.6 | 2.0 | 17.6 |
| 10 | 인도 | 605 | 693 | 340 | 2.3 | 2.2 | 1.9 | -17.1 |
| 13 | 대한민국 | 510 | 470 | 299 | 1.9 | 1.5 | 1.7 | 3.7 |
| | 총계 | 26,607 | 32,116 | 17,490 | 100.0 | 100.0 | 100.0 | -7.2 |

자료: Global Trade Atlas

- 미국은 화석 연료 수입에 약 46%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휴대전화, 컴퓨터, 오토바이, 알루미늄 등 다양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전기·플라스틱 제품·의약품 등에 집중된 편임

〈'23년 과테말라의 3대 주요 수입국별 5대 수입 품목(7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미 국 | | 중 국 | | 멕시코 | |
|----|------------|-------|------------|-----|--------------------|----|
| | 품목(HS코드) | 금액 | 품목(HS코드) | 금액 | 품목(HS코드) | 금액 |
| 1 | 석유(2710) | 2,149 | 휴대전화(8517) | 367 | 모니터(8528) | 75 |
| 2 | 옥수수(1005) | 290 | 컴퓨터(8471) | 114 | 전기에너지(2716) | 57 |
| 3 | 석유가스(2711) | 245 | 오토바이(8711) | 102 | 절연 와이어 및 케이블(8544) | 53 |
| 4 | 대두박(2304) | 191 | 알루미늄(7606) | 78 | 의약품(3004) | 49 |
| 5 | 중고의류(6309) | 114 | 타이어(4011) | 77 | 맥주(2203) | 43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중점 교역국 중 역내 중미국은 경공업품, 식료품, 봉제 관련 원부자재 등에 집중

〈'23년 과테말라의 중미지역(5개국) 5대 수입 품목(7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엘살바도르 | | 코스타리카 | | 온두라스 | | 파나마 | | 니카라과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1 | 플라스틱제품 (3923) | 48 | 가공식품 (2106) | 94 | 비누 (3401) | 27 | 냉동어류 (0303) | 4 | 쇠고기 (0201) | 13 |
| 2 | 음료 (2202) | 39 | 소스 (2103) | 38 | 빵 (1905) | 22 | 의약품 (3004) | 4 | 음료 (2202) | 13 |
| 3 | 빵 (1905) | 32 | 면사 (5206) | 23 | 가공식품 (2106) | 20 | 판지 (4804) | 3 | 갑각류 (0306) | 6 |
| 4 | 의약품 (3004) | 31 | 빵 (1905) | 21 | 철스크랩 (7204) | 19 | 전화기 (8517) | 3 | 유제품 (0402) | 5 |
| 5 | 휴지 (4818) | 31 | 위생패드 (9619) | 19 | 시멘트 (2523) | 14 | 철스크랩 (7204) | 2 | 철스크랩 (7204) | 5 |

자료: Global Trade Atlas

- 과테말라의 수출의 경우, '23년 7월 기준 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31.4%)과 엘살바도르(12.7%), 온두라스(11.0%)가 비중이 높음

- 반면, 한국(0.5%)을 비롯한 일본(1.4%), 대만(1.0%), 중국(1.0%)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

* 한 수출의 경우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29.6%)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 규모〉

| 순위 | 국 가 | 연도별 수출액 (백만 달러) | | | 비중 (%) | | | 증감률 ('23.7/'22.7, %) |
|----|---------|-----------------|-------|--------|--------|--------|--------|-------------------------|
| | | 2021 | 2022 | 2023.7 | 2021 | 2022 | 2023.7 | |
| 1 | 미국 | 4,274 | 4,884 | 2,747 | 31.1 | 31.1 | 31.4 | -10.4 |
| 2 | 엘살바도르 | 1,731 | 2,049 | 1,109 | 12.6 | 13.1 | 12.7 | -10.1 |
| 3 | 온두라스 | 1,399 | 1,585 | 962 | 10.2 | 10.1 | 11.0 | 7.3 |
| 4 | 니카라과 | 844 | 998 | 556 | 6.1 | 6.4 | 6.4 | -5.7 |
| 5 | 네덜란드 | 394 | 636 | 390 | 2.9 | 4.0 | 4.5 | -8.3 |
| 6 | 멕시코 | 593 | 689 | 383 | 4.3 | 4.4 | 4.4 | -4.6 |
| 7 | 코스타리카 | 541 | 635 | 373 | 3.9 | 4.0 | 4.3 | 5.8 |
| 8 | 파나마 | 300 | 323 | 188 | 2.2 | 2.1 | 2.2 | -0.7 |
| 9 | 스페인 | 266 | 305 | 169 | 1.9 | 1.9 | 1.9 | -5.9 |
| 10 | 도미니카공화국 | 198 | 252 | 147 | 1.4 | 1.6 | 1.7 | 4.6 |
| 26 | 대한민국 | 91 | 161 | 48 | 0.7 | 1.0 | 0.5 | -29.6 |
| | 총계 | 7,891 | 9,599 | 8,743 | 100.00 | 100.00 | 100.00 | -8.9 |

자료: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현지 제조 기반이 없는 공산품에 집중
 - 연료(석유·가스·석탄), 휴대폰, 자동차(승용차·화물차), 오토바이, 컴퓨터 등의 공산품이 차지
 - 특히 자동차의 경우, 신차와 함께 중고차의 수입이 많아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전년 대비 수입이 대폭 증가
 - 봉제 원부자재의 경우,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인한 과테말라 봉제산업의 위축으로 점차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과 달리 상위 10개 수입 품목에 들어가지 못함
-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4대 상위 품목 모두 농산물이 차지

〈'23년 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7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수 입 | | | 수 출 | | |
|----|--------------|-------|-------|-----------------|-----|-------|
| | 품목명(HS) | 금 액 | 증감률 | 품목명(HS) | 금 액 | 증감률 |
| 1 | 석유화학제품(2710) | 2,423 | -11.5 | 커피(0901) | 775 | -13.9 |
| 2 | 휴대전화(8517) | 618 | -2.3 | 바나나(0803) | 668 | 9.9 |
| 3 | 승용차(8703) | 588 | 36.8 | 팜유(1511) | 492 | -9.1 |
| 4 | 의약품(3004) | 476 | 8.6 | 사탕수수당(1701) | 483 | -11.5 |
| 5 | 화물차(8704) | 466 | 37.0 | 저지·폴오버(6110) | 258 | -15.3 |
| 6 | 옥수수(1005) | 327 | 1.6 | 육두구(0908) | 234 | -22.8 |
| 7 | 가공식품(2106) | 257 | 12.2 | 티셔츠(6109) | 220 | -2.3 |
| 8 | 천연가스(2711) | 245 | -22.7 | 의약품(3004) | 212 | 11.6 |
| 9 | 오토바이(8711) | 187 | 3.8 | 남성용셔츠(6105) | 170 | -25.8 |
| 10 | 컴퓨터(8471) | 178 | -22.3 | 메론·수박·파파야(0807) | 159 | 18.3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 과테말라는 기본적으로 현지 제조 기반이 약해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입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음
 - 현 정권 말기에 정권 교체 전에 기득권이 최대한 공식·비공식 세수를 걷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며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비용과 시간 과도하게 소요
 -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관세장벽으로는 식료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라벨링 등을 꼽을 수 있으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과도한 편은 아니며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인증제품을 선호하는 수준임

다. 투자

▣ 투자 진출 동향

- 과테말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해마다 감소 추세였으나, '21년에 룩셈부르크의 밀리콤(Millicom)이 과테말라 2대 통신사 중 하나인 TIGO를 인수하면서 22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여 한때 對과테말라 해외직접투자액이 반등하기도 함
- 하지만 '22년부터 다시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다시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19.3%), 콜롬비아(18.8%), 룩셈부르크(16.3%), 멕시코(14.3%)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나타냈고, 한국(3.0%)은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남
 - 과테말라는 다른 중남미와 달리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

〈최근 5년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US달러, %)

| 국가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3월**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온두라스 | 34.8 | 3.6 | 25.5 | 2.7 | 41.3 | 1.2 | 57.8 | 4.3 | 18.1 | 4.6 |
| 엘살바도르 | 11.8 | 1.2 | 24.4 | 2.6 | -9.5 | -0.3 | 5.4 | 0.4 | 17.4 | 4.4 |
| 파나마 | 23.8 | 2.4 | 178.0 | 19.0 | 209.1 | 6.0 | 138.6 | 10.3 | -2.1 | -0.5 |
| 코스타리카 | 5.5 | 0.6 | 11.5 | 1.2 | 15.8 | 0.5 | 8.5 | 0.6 | 3.8 | 1.0 |
| 도미니카공화국 | 0.2 | 0.0 | 1.8 | 0.2 | -0.1 | 0.0 | 1.1 | 0.1 | 1.4 | 0.4 |
| 니카라과 | 0.4 | 0.0 | 0.2 | 0.0 | 0.3 | 0.0 | 0.4 | 0.0 | 0.1 | 0.0 |
| 중미 소계 | 76.5 | 7.8 | 241.5 | 25.8 | 256.9 | 7.4 | 211.8 | 15.7 | 38.6 | 9.8 |
| 멕시코 | 107.7 | 11.0 | -12.8 | -1.4 | 166.8 | 4.8 | 193.4 | 14.3 | 79.6 | 20.2 |
| 룩셈부르크 | 31.1 | 3.2 | 41.4 | 4.4 | 2,248.4 | 64.9 | 221.1 | 16.3 | 51.6 | 13.1 |
| 미국 | 235.5 | 24.1 | 96.1 | 10.3 | 120.8 | 3.5 | 261.3 | 19.3 | 52.1 | 13.2 |
| 콜롬비아 | 175.8 | 18.0 | 228.4 | 24.4 | 337.1 | 9.7 | 254.2 | 18.8 | 48.2 | 12.2 |
| 한국 | 26.3 | 2.7 | 14.9 | 1.6 | -21.5 | -0.6 | 41.0 | 3.0 | 8.7 | 2.2 |
| 전 세계 합계 | 976.1 | 100.0 | 934.9 | 100.0 | 3,461.8 | 100.0 | 1,352.4 | 100.0 | 394.6 | 100.0 |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23.8월 기준 통계)

** 잠정 수치

- '22년 기준 업종별로는 도소매·자동차정비업(28.7%), 금융·보험업(19.7%), 정보통신(18.9%), 제조업(11.6%) 순으로 투자가 활발
 - 전력 및 금융보험업의 경우, 멕시코, 콜롬비아계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의 지분 인수 등으로 시장에 대거 진출한 바 있으며, 룩셈부르크가 새롭게 정보통신 분야 대규모 투자국가로 부상함
-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봉제 분야의 임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과거에 비해 과테말라의 섬유(봉제) 분야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주요 바이어인 미국 기업들의 2021년의 코로나로 인한 니어쇼어링 오더 급증으로 월마트(Walmart), 타깃(Target) 등의 대형 유통망의 재고 물량 과다로 인한 추가 오더가 중단되면서 신규 투자 계획들 역시 보류되고 있음

〈'22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연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업종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3월**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농축수산업 | 4.8 | 0.5 | -6.3 | -0.7 | -2.6 | -0.1 | 29.3 | 2.2 | 6.4 | 1.6 |
| 광업 | 58.7 | 6.0 | 22.7 | 2.4 | 23.0 | 0.7 | 63.1 | 4.7 | -3.8 | -1.0 |
| 제조업 | 227.0 | 23.3 | 263.1 | 28.1 | 284.9 | 8.2 | 157.4 | 11.6 | 58.3 | 14.8 |
| 전력, 수도, 환경 | 115.0 | 11.8 | 140.2 | 15.0 | 244.2 | 7.1 | 66.0 | 4.9 | 48.4 | 12.3 |
| 건설 | -7.5 | -0.8 | 2.8 | 0.3 | 11.9 | 0.3 | 18.8 | 1.4 | 5.8 | 1.5 |
| 도소매/자동차 정비 | 140.1 | 14.4 | 123.6 | 13.2 | 264.1 | 7.6 | 388.8 | 28.7 | 129.3 | 32.8 |
| 운송 및 물류 | 3.9 | 0.4 | -3.1 | -0.3 | 30.9 | 0.9 | 33.3 | 2.5 | 10.9 | 2.8 |
| 숙박 및 요식업 | 9.9 | 1.0 | -5.7 | -0.6 | 0.6 | 0.0 | 6.1 | 0.5 | 1.7 | 0.4 |
| 정보통신 | 58.1 | 5.9 | -27.8 | -3.0 | 2,249.2 | 65.0 | 255.5 | 18.9 | 74.8 | 19.0 |
| 금융 및 보험업 | 340.6 | 34.9 | 341.3 | 36.5 | 309.2 | 8.9 | 266.8 | 19.7 | 50.7 | 12.9 |
| 기타 | 25.5 | 2.6 | 84.0 | 9.0 | 46.6 | 1.3 | 67.3 | 5.0 | 12.0 | 3.1 |
| 총계 | 976.1 | 100.0 | 934.9 | 100.0 | 3,461.8 | 100.0 | 1,352.4 | 100.0 | 394.6 | 100.0 |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22.10)

** 잠정 수치

▣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

- 경쟁력 저하 문제
 - 가격경쟁력 저하
 - * 현지 생산 원가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 시 아시아보다 10% 이상 비싸지만, 최근 미국 바이어들이 아시아 주문 물량을 동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시아와 비슷한 가격으로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미 상당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
 - * 팬데믹 발생 전후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생산 단가는 10%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상담 진행 중인 '20년도 이전 가격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비즈니스 전망은 밝지 않음
 - * 다만, 과테말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당사를 비롯해 여러 벤더들이 원자재 생산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
 - 노동경쟁력 저하
 - * 과테말라 젊은 인력의 미국행 이민 증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증가 등 여타 이유로 예전보다 봉제 공장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 금년 최저임금이 7% 인상되는 등 기업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과테말라의 인건비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 니카라과의 경우 인건비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의류 수출이 47% 성장하였으나, 과테말라의 인건비는 니카라과보다 37%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봉제공장의 경쟁력이 얼마나 더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
- 현지 정부기관의 투자 방해 요인
 - 관세청(SAT) 문제
 - * 관세당국을 비롯한 여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이 해야 하는 행정 절차나 인허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최근 몇 년 동안 과테말라 국세청과 소송 중으로, 수출 기업에 부여되는 환급 규정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래처가 당사에 발급한 일부 서류의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국세청에서는 환급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돌려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정부 문제
 - * '23년 지방선거로 인한 불안한 정세 및 인허가 관련 해당 지역 시장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공사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
 - 노동부 문제
 - * 진출기업의 본사 파견 주재원의 노동허가증(Working License) 발급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어 정상적인 임금 지급 차질 및 다양한 부가적인 문제 발생

라. 프로젝트

▣ ICT 및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 과테말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 소외 지역의 사회 인프라 확충 (전력, 통신망, 보건 등) 등을 위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중미통합개발은행 (CABEI) 등에서 재원을 조달

▣ 2023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추가 프로젝트 추진 보류

- 국제 채무에 대한 과테말라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2022년까지 국회 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외에는 국제개발은행 승인을 받은 건들도 현지 국회 승인 절차를 대선 이후까지 보류 중
 - 신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가. 교역

▣ 한-중미 FTA 체결과 중미 교역량

- '19~'21년 사이에 발효된 한-중미 FTA와 한국과 중미 6개국 사이의 교역량은 팬데믹과 러-우 사태 등의 외부 변수들로 인해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22년 기준 대부분 FTA 발효 연도 대비 교역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對중미 수출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전년 대비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이후 '23년 8월 기준 중미 국가 중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국가들 대상의 수출은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파나마의 경우 선박 수출 호조로 인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한국의 對중미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2023.8월 | |
|-------|-------|-------|-------|-------|-------|-------|-------|------------------|---------|--------|
| | | | | | | | 수출액 | FTA 발효 연도 대비 증가율 | 수출액 | 증가율 |
| 파나마 | 1,441 | 1,642 | 2,008 | 1,713 | 1,369 | 1,570 | 1,170 | -25.5% | 819 | 72.3% |
| 과테말라 | 288 | 241 | 237 | 222 | 203 | 384 | 323 | - | 203 | -15.3% |
| 코스타리카 | 217 | 168 | 135 | 119 | 111 | 191 | 213 | 79.0% | 181 | 20.8% |
| 엘살바도르 | 128 | 160 | 166 | 149 | 120 | 255 | 208 | 73.3% | 129 | -12.0% |
| 온두라스 | 117 | 126 | 118 | 125 | 108 | 135 | 141 | 12.8% | 104 | 3.2% |
| 니카라과 | 128 | 106 | 98 | 70 | 79 | 79 | 79 | 12.9% | 56 | -2.8% |

자료: KITA 무역통계

노란색으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표기(과테말라 미발효)

- 한국의 對중미 수입은 '23년 8월 기준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FTA 체결 국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FTA 미체결국인 對과테말라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對중미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2023.8월 | |
|-------|------|------|------|------|------|------|------|------------------|---------|--------|
| | | | | | | | 수입액 | FTA 발효 연도 대비 증가율 | 수입액 | 증가율 |
| 파나마 | 339 | 141 | 153 | 87 | 272 | 458 | 593 | 29.5% | 256 | -36.6% |
| 과테말라 | 139 | 112 | 67 | 64 | 78 | 138 | 131 | - | 101 | 11.3% |
| 코스타리카 | 133 | 139 | 207 | 225 | 156 | 421 | 172 | -23.6% | 107 | -13.4% |
| 엘살바도르 | 13 | 20 | 24 | 39 | 62 | 98 | 69 | 11.3% | 50 | -2.1% |
| 온두라스 | 47 | 42 | 52 | 63 | 71 | 82 | 118 | 87.3% | 45 | -38.5% |
| 니카라과 | 12 | 11 | 17 | 20 | 71 | 50 | 79 | 295.0% | 44 | -24.1% |

자료: KITA 무역통계
 노란색으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표기(과테말라 미발효)

▣ 한-과테말라 FTA 추가 발효 시 양국 간 교역 증가 예상

- 한국과의 FTA 발효 전인 '21년부터 對중미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22년에는 러-우 사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양국 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감소
- '23년 상반기에는 국제적인 교역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량은 다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22년 총 수출액 3,980만 달러로 한국의 對과테말라 2위 수출 품목이던 광물성 연료(HS 21)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130만 달러 수출에 그치고 있는 점과, 한국의 對과테말라 철광석 광물류(페로니켈, 니켈)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테말라와의 교역에서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무역수지 |
|--------|----------------------|----------------------|-------|
| 2018 | 237.0 (-1.7%) | 66.9 (-40.2%) | 170.1 |
| 2019 | 221.8 (-6.4%) | 63.8 (-4.6%) | 158.0 |
| 2020 | 203.3 (-8.4%) | 78.0 (22.3%) | 125.3 |
| 2021 | 383.9 (88.8%) | 138.3 (77.2%) | 245.6 |
| 2022 | 322.8 (-15.9%) | 131.4 (-5.0%) | 191.4 |
| 2023.8 | 202.8 (-15.3%) | 101.2 (11.3%) | 101.6 |

자료: KITA 무역통계

▣ 한-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동향

- 한국의 對과테말라 최대 수출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특히 화물차, 중고차 수출이 두드러짐
- 한국의 對과테말라 최대 수입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입 품목은 철강 및 철강 관련 제품 (페로니켈, 니켈,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 * 단일 품목으로는 커피가 최대 수입 품목이지만, 철강류를 수입액을 합하면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류의 제품으로 나타남
 - * 특히 페로니켈의 수입이 2023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1,395.9%로 대폭 증가하면서 수입 2위 품목으로 부상함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 수출 | | 구분 | | 수입 | | 무역수지 |
|--------------------------------|--|-----------|-------|--------------------------------------|-----------|---------|-----------|------|
| 순위 | 품목 | '23.1~8월 | 증가율 | 품목 | '23.1~8월 | 증가율 | | |
| 한국의 총 교역액 | | 409,502.4 | -12.4 | 한국의 총 교역액 | 433,278.7 | -12.1 | -23,776.3 | |
| 對과테말라 (수출 80위, 비중 0.05%) | | 202.9 | -15.3 | 對과테말라 (수입 82위, 비중 0.03%) | 101.2 | 11.3 | 101.6 | |
| 1 | 자동차 (HS 87) | 68.2 | 41.9 | 커피 (HS 09) | 33.4 | -27.9 | | |
| 2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 39) | 21.3 | -19.8 | 철강 -페로니켈 (HS 72) | 21.8 | 1,395.9 | | |
| 3 | 기계류 -건설중장비·섬유기계 (HS 84) | 20.9 | -23.3 | 광, 슬랙, 회 -니켈 (HS 26) | 19.6 | 105.6 | | |
| 4 | 화학공업생산품 -매염제, 염색촉진· 고착제 (HS 38) | 13.9 | 28.5 | 과실과 견과류 -바나나 (HS 08) | 8.3 | 79.9 | | |
| 5 | 유연, 염색엑스, 타닌 -염료 (HS 32) | 8.7 | -16.8 |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품 (HS 61) | 5.4 | -26.6 | | |

자료: KITA 무역통계

나. 투자 진출

- 과테말라는 브라질(5만), 아르헨티나(2만), 멕시코(1만), 파라과이(5,000)에 이은 중남미 5대 교포경제권이며, 진출한 봉제업체 관계자들이 주류를 구성
 -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만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임가 공업과 관련된 봉제 및 수직 계열화된 중·소규모 협력기업들이 대부분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44개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과테말라 진출기업 및 한인기업 현황〉

(144개 기업 : 봉제·섬유 114개, 자영업 30개)

| 구분 | 기업명 | 진출년도 | 구분 | 설명 (취급 품목 등) |
|----------|-------------|------|------|------------------|
| 진출 기업 | 센텍사(세아상역) | 1987 | 제조업 | 의류 |
| | 신원 | 1997 | 제조업 | OEM 의류 현지 생산 |
| | 삼성전자 지점 | 2000 | 도소매업 | TV, HHP 등의 전자제품 |
| | 영신물산 법인 | 2003 | 제조업 | 염색 |
| | 한솔 법인 | 1999 | 제조업 | 니트 |
| | LG전자 지점 | 2005 | 도소매업 | 핸드폰, 가전, IT |
| | 한세 법인 | 2005 | 제조업 | 니트 |
| | C-SITE 법인 | 2009 | 제조업 | 니트 |
| | 정우섬유 법인 | 2004 | 제조업 | 원단 생산 서비스 |
| | 삼성제침 법인 | 2004 | 제조업 | 봉제기계 바늘 |
| | (주)창우섬유 법인 | 2020 | 제조업 | 마스크 |
| | 제이시스 법인 | 2022 | 서비스업 | ICT 솔루션 제공 |
| | 풍인 법인 | 2022 | 제조업 | 의류 |
| | 일신방직 법인 | 2023 | 제조업 | 방직 |
| | 영원 무역 | 2023 | 제조업 | 의류 |
| 한인 기업 | 플라스틱유니(주) | 1999 | 제조업 | 폴리백 |
| | 스타텍스 | 2004 | 제조업 | 의류 |
| | MFM | 2014 | 제조업 | 의류 |
| | 빠시피카카리비아나 | 1988 | 제조업 | HDPE PIPE |
| | 본어패럴 (보나텍스) | 1989 | 제조업 | 니트 |
| | 삼솔 | 1989 | 제조업 | 우븐(여성의류) |
| | 대봉식품 | 1991 | 도소매업 | 농심라면/동아박카스 수입/유통 |

| 구분 | 기업명 | 진출년도 | 구 분 | 설명 (취급 품목 등) |
|----|----------------|------|------|----------------|
| | 마스빠라곤 | 1991 | 제조업 | 염색 재봉사 |
| | 프리마베라인터내셔널 | 1992 | 제조업 | 우븐, 니트 |
| | 노벨텍스틸 | 1995 | 제조업 | 우븐(여성의류) |
| | 메가텍스틸 | 1995 | 제조업 | 편직 |
| | 인더스트리아스일양 | 1997 | 서비스업 | 부자재, 미싱부품기계 |
| | 엘림 | 1998 | 제조업 | 의류 OEM 생산 및 수출 |
| | 씨엘로인터내셔널 | 1999 | 제조업 | 니트 |
| | 산호세무역 | 2001 | 도소매업 | 식료품, 잡화류 슈퍼 운영 |
| | 현진 | 2001 | 제조업 | 니트 |
| | 에델패션 | 2004 | 제조업 | 니트 |
| | 텍스틸레스염광 | 2004 | 제조업 | 재봉사 |
| | 니토피아 | 2004 | 제조업 | 편직물 |
| | 코퍼레이션아크로 | 2004 | 제조업 | 염색, 가공, 워싱 |
| | 엘엠에스 | 2005 | 서비스업 | 섬유 무역 에이전트 |
| | 노보 | 2005 | 제조업 | 플라스틱 단추 |
| | 에스큐에이엔케이시인터내셔널 | 2006 | 서비스업 | 섬유 무역 에이전트 |
| | 엠디어패럴 | 2006 | 제조업 | 니트 |
| | 코아모다스 | 2007 | 제조업 | 우븐 |
| | 광림통상 | 2007 | 제조업 | 섬유, 의류산업 |
| | 반도패션 | 2008 | 제조업 | 우븐 |
| | 실사랑아메리카 | 2008 | 도소매업 | 실, 재봉사 |
| | 에벤에셀인터내셔널 | 2009 | 제조업 | 니트 |
| | 이초텍스틸 | 2009 | 제조업 | 니트 원단 |
| | 라인스톤 | 2011 | 제조업 | 의류 프린팅 |
| | 아이엔티트레이딩 | 2013 | 제조업 | 여성/남성 의류 |
| | 제이에스인터내셔널 | 2013 | 제조업 | 니트 |
| | 글로벌오비 | 2014 | 제조업 | 니트 |
| | 하나무역 | 2015 | 제조업 | 의류, 잡화 |
| | 제이에이치 트레이딩 | 2016 | 제조업 | 니트 |
| | 제이에스텍스틸 | 2017 | 제조업 | 편직 |
| | 제이에스씨오 | 2018 | 제조업 | 니트 |
| | 문도텍스틸 | - | 제조업 | 염색 |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89년 13건, '00년 1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의복,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 수 89%, 투자금액 86%)
 - 노동집약적인 봉제업 특성상 인건비가 낮은 중미 시장에서 미국 의류/섬유 제품 시장을 겨냥한 니어쇼어링을 위한 봉제 제조업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
 - 업종별로는 2021년에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도소매업 2개 법인과 2022년에 정보통신업 1개 법인 설립이 이루어짐

〈한국의 對과테말라 투자 현황('80~'23.8월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 신규 법인 수 | 신고금액 | 투자금액 |
|--------------------------|---------|-------|-------|
| 건설업 | 4 | 32.1 | 20.2 |
| 도소매업 | 2 | 5.2 | 4.7 |
| 부동산업 | 1 | 1.2 | 1.1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0 | 0.3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1 | 0.3 | 0.2 |
| 정보통신업 | 1 | 0.1 | 0.0 |
| 제조업 | 92 | 267.5 | 157.1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 0.5 | 0.2 |
| 기타 제품 제조업 | 2 | 2.1 | 1.2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8 | 59.3 | 28.5 |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 2 | 10.2 | 1.2 |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1 | 0.0 | 0.0 |
| 날염 가공업 | 1 | 0.5 | 0.0 |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1 | 3.0 | 2.9 |
| 편조 원단 제조업 | 3 | 9.5 | 9.3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10 | 36.1 | 15.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 | 0.4 | 0.4 |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1 | 0.3 | 0.3 |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1 | 0.1 | 0.1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66 | 203.7 | 125.6 |
| 그 외 기타 봉제 의복 제조업 | 56 | 153.5 | 94.6 |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1 | 1.1 | 0.2 |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2 | 25.3 | 17.1 |
| 여자용 겹옷 제조업 | 4 | 11.8 | 11.5 |
| 편조 의복 제조업 | 3 | 12.0 | 2.2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3 | 1.6 | 1.3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 2 | 1.4 | 1.2 |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 1 | 0.2 | 0.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 | 0.0 | 0.0 |
| 총계 | 103 | 306.7 | 183.4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3.8)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ALCATEX〉

- 편직-봉제 생산라인을 갖춘 수출 임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지에 자생한 한국계 기업
- 타 봉제기업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가운데, 공격적 영업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중견업체
- Textivision社(봉제), Nitopia社(편직), Startex社(무역) 등 3개 사가 통합, 오더부터 제조-공급까지 일괄 진행 가능
- 현재 라운드, 폴로 티셔츠 등을 주로 생산하며, Polo(Ralph Lauren) 브랜드를 주력으로 Guess, Adidas, Newera, Outerstuff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에 납품 중

※ ALCATEX 자회사 개요

- ① Nitopia社(편직) : 편직기 200대 보유, 종업원 200여 명 근무 중(매출 50만 달러/연)
- ② Textivision社(봉제) : 롱라인 4대 운영 중이며, 종업원 400여 명 근무 중(매출 300만 달러/연)
- ③ Startex社(무역) : 무역 자회사로 매출 규모는 2,500만 달러/연(종업원 수 100여 명)

▣ 시사점

- 과테말라 봉제업의 경우 임가공 투자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꾸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거 1980~90년대 전성기 대비 경쟁력을 이미 많이 상실한 상태
 - 주력 구매처인 미국 바이어들의 오더도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라 상당량이 합섬 제품을 제조 기반이 갖춰진 동남아 공급처로 전환되고 있어 전체적인 추가 생산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봉제 분야의 투자가 증대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21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섬유산업 수요 물량이 니어쇼어링 효과로 과테말라에 몰리면서 한때 코로나 특수를 누리기도 함
 - 중국과 베트남 등의 주요 동남아 공급처들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미국 섬유업계의 물량이 과테말라 봉제공장들로 몰리게 됨
-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테말라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 계획 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신중한 투자를 진행해야 함
 - '22년 하반기 시작 전후부터 주요 바이어인 Walmart의 재고 물량 과다 및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주문 물량이 중단된 상황
 - 이로 인해 대부분 섬유산업 제조공장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대규모 직원 해고 및 강제 휴가를 보내는 등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수요 저하와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현지 공장 증설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도 시공 계획을 미루고 있음

다. 협력 유망 분야

▣ ICT 및 공공 인프라 사업

• IDB-KIF 차관 ICT 및 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 프로젝트 규모: IDB 4,500만 달러, 한국 KIF 2,500만 달러 비중으로 총 7,000만 달러 규모
- ◆ 발주처 : 과테말라 통신인프라주택부(MCIV), FONDETEL
- ◆ 프로젝트 내용 : 지방 학교 3,014개 및 공공기관 200개 대상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구축 및 관련 기기 조달
- ◆ 추진 현황
 - IDB 과테말라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명기되어 IDB기금 승인('21.3.10)
 - 과테말라 국회 상정 및 승인 추진 예정('24년 예산 편성안에 포함 가능성)
 - 2022년 6월에 IDB-KSP 관련 현장 실태 조사단 과테말라 방문 조사 완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아이티 컨설팅, 삼성SDS 진행)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차관 지방병원 건설 프로젝트

- ◆ 프로젝트 규모 : 총 1.9억 달러 (한국 EDCF 자금이 7,900만 달러 투입)
- ◆ 발주처 : 과테말라 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 ◆ 프로젝트 내용 : '22년 2개 병원 신축, 2개 병원 증축 입찰, '24년 1개 병원 신축 입찰 예정
 - 병원별 턴키 시공 및 감리 분리 발주
- ◆ 추진 현황 : 2개 신축, 2개 증축 입찰 완료, 1개 신축(Coban 지역 병원) 입찰공고 대기 중
- ◆ 특이사항 : '19.12월부 한국의 회원국 가입 및 KTF기금 연계를 통해 회원국 특혜*를 활용하여 CABEI 차관 프로젝트의 우리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확대 가능
 - CABEI 조달 규정상 회원국과 비회원국 기업이 동시에 참여한 입찰에서 가격 차이가 15% 이내이면 낙찰자 결정 이전에 회원국 기업에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 프로젝트 규모 : 1.58억 달러 투자 예상(PPP)
- ◆ 발주처 : 과테말라 민관협력사업청(ANADIE), 통신인프라주택부(MCIV)
- ◆ 프로젝트 내용 : 라우로라(La Aurora) 과테말라 국제공항 현대화(2년) 및 운영(25년간)
 - 참가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후부터 공항 운영권을 25년간 갖게 되며, 첫 2년 내 현대화 관련 의무사항 시공 완료 진행 필요
 - (1) 활주로 수용력(Capacity) 확대 : 현재 420만 승객에서 750만 승객으로 확대 (공항 현 수용력(Capacity) 750만 승객과 동일하게 활주로 Capacity 확대)
 - (2) Taxi 활주로를 현재 90도 방향에서 45도로 변경
 - (3) IT 시스템 업그레이드(Aphis, Bondos 등 관련 최신 기술 도입), 승객 공항 체크인 트래킹 시스템, 공항 종합 행정 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등
 - (4) 가족 및 방문객 공간 신축
- 수익구조 : 25년간 공항 운영을 통한 수익(임대료, 공항세 등) 창출을 통한 투자금 회수(관제탑 운영권 제외)
- ◆ 추진 현황
 - Deloitte-Tetracore 1차 F/S 완료, IDB 차관으로 2차 F/S도 완료
 - 2022년 중 PQ 공고 후 4개월간 모집 기간 진행 예정
 - 2023년 PQ 공고에 참가 신청한 기업/컨소시엄 대상 30일간 자격심사 평가 후
 - 자격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F/S 자료 및 2023년 본입찰 공고 시 참가 자격 부여

※ 참고사항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개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of Economic Integration)]

- 설립 : 1960.12월(본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목적 : 중미 5개국*이 지역발전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투자 자원을 위해 설립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 대출액 : 86.2억 달러('21년)
- MDB를 통한 중미 조달자금의 약 43%('21년 기준) 차지
- 회원국(총 15개국) 현황 : (역내) 8개국, (역외) 7개국

〈CABEI 회원국별 지분율/투표권 비중('22.4월)〉

| | |
|--------------------|---|
| 역내국(8개) *중미 수혜국 | <u>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10.20/10.73%),</u> 도미니카(공)(5.41/4.99%), 파나마(5.12/4.81%), 벨리즈(0.36/0.34%) |
| 역외국(7개) *기부 회원국 | <u>대만(11.09/11.42%), 한국(9.00/7.63%),</u> 멕시코(4.38/5.00%), 스페인(4.00/4.21%), 아르헨티나(4.37/4.25%), 콜롬비아(2.90/3.05%), 쿠바(0.71/0.61%) |

* (볼드체) 창립 회원국, (밑줄) 이사국(총 12개국), (따란 글씨) 영구 이사국/아르헨·콜롬비아(공동이사실 구성)

- 한국 가입 현황 : (가입) '19.12월, (총자본금) 6.30억 달러(지분율 9.00%, 투표권 7위), 영구 이사국*
* 한국의 MDB 역외 영구 이사국 최초 수입 사례
- 한국 자금 지원 현황 : (KTF) 0.5억 달러, (EDCF 협조 용자 약정액) 6.0억 달러

▣ 공급망 협력

- 전략자원 : 페로니켈(Ferronickel, HS코드 7202.60) 공급망 협력 가능성
 - 씨지엔(Compañía Procesadora de Niquel, CGN/Pronico)은 연 매출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과테말라의 니켈 원광 관련 유일한 공급업체로 공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유일의 페로니켈 제련소(Pobuzhsky) 플랜트로 제품을 보내고 있으나, 현재 러-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한국에서의 대체 수요가 존재할 시 현 상황에서는 공급망으로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 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러시아계 기업으로 현지 갭단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많은 미공개 사망자들을 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

Chapter



진출전략



- ▶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통합시장 관점에서의 마케팅 강화
 - 중미지역 FTA 활용사업, 국가별 상공회 및 유관기관 협업사업 등
- ▶ 화장품, 식품 등의 한류 우수 소비재 수출 사업 추진
 -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팝업스토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 ▶ CABI 정회원국 가입에 따른 MDB 차관 활용 프로젝트 수주 강화

1 PEST 분석

| | |
|-----------------------------------|--|
| P 정치정책 (Politic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월 14일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권 교체 • 부정부패 척결 및 환경보호 정책 신규 추진 가능성 |
| E 경제 (Economi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3.3%로 전망, 전년도 3.0%) • 해외 송금 증가에 따른 내수 소비 증가 예상 • 과테말라 한-중미 FTA 추가 가입에 따른 수혜 품목 경쟁력 확대 • 경제 인프라 공공 투자 확대 및 관련 프로젝트 재개 |
| S 사회문화 (Soci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 부정부패 척결 노력 및 환경보호 의식 확대 가능 • 보안, 사회 보장 등 서민층을 위한 사회발전 확대 |
| T 기술 (Technologic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과테말라 관세 행정 시스템 현대화(디지털화) 진행 중으로 과거 관행대로 수입품의 비공식 통관 불가 대비 필요 |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과테말라 시장 SWOT 분석〉

| | |
|--|--|
|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진출기업의 현지 봉제산업 영향력 • 제조업(경공업) 발달로 원부자재 수요 다대 • 환율 리스크 적은 안정적 외환시장 보유 • 소비자 중심의 한국산 인지도 제고 |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시장 구매력으로 인한 한국 상품 가격경쟁력 부족 • 프로젝트 정부 사업 및 행정 절차 불확실성에 따른 한국기업 현지 국제 입찰 참가 어려움 • 과도한 미국 의존 경제에 따른 한국 진출기업에도 영향 |
|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관세동맹을 활용한 시장 진출 용이 •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회원국 지위 활용 • 한-중미 FTA 발효 | <p>위 험(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시장점유율 증가세 • 봉제 등 임가공 분야 경쟁력 약화 지속 • 치안 불안 및 부정부패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 증대 |

| 전략 방향 | 세부전략 | 진출전략 |
|------------------|---|---------------------|
| SO 전략 (역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수혜 품목, 우수 상품 시장 개척 • 식음료·화장품 등 소비자시장 진출 강화 | FTA 활용·홍보사업 추진 |
| ST 전략 (강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新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자 발굴 •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 분야 시장 개척 • 현지 정부 육성 산업 협력 분야 투자 진출 강화 | 중미통합시장 관점 마케팅사업 추진 |
| WO 전략 (기회 포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시장 전체 대상의 마케팅사업 추진 • SIECA, CABE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용 | 경쟁력 우위 한류 소비자 진출 지원 |
| WT 전략 (위험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연계 맞춤형 프로젝트 F/S 수요 발굴 • 전대금융, 개발협력 차관 활용 인프라사업 참여 | 협력 유망 분야 투자 진출 강화 |

2024년 진출전략

| 이슈 |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
| 한-중미 FTA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북부 3개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 중미 북부 3개국 상시 화상상담 지원 ◦ 공관 및 유관기관 협력 중미 3개국 FTA 활용 세미나 및 (대행)상담회 ◦ 수혜 품목 관련 중미 주요 전시회 한국관 참가 ◦ 지방 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전문사절단 |
| 중미시장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통합시장 관점의 마케팅사업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소비자 마케팅 패키지 등 중미지역 무역관 공동 협업사업 적극 개발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협력사업 적극 개발 ◦ 역내 시장 통합 분위기를 적극 활용, 중미 전체시장 대상의 사업 모델 도입 |
| 소비재 진출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우위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소비재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업사업 지속 전개 ◦ 신규 소비재의 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대상 현지 테스트마케팅 대행 지원 |
| 개발 협력 수요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B 차관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개발, 수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자금 및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향력 증대에 따른 역내 프로젝트 수주 호재 적극 활용 |

FTA·시장 통합 이슈를 활용한 중미 틈새시장 개척,
MDB 한국 기금 활용 프로젝트 사업 공략

3-1. 중미 북부 3개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추진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1.3월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해 중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는 미국을 비롯한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인근국과 주로 교역을 하고 있으나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 품목과 대한국 주요 수입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참여로 관세 혜택을 통한 교역 증대 기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중미 FTA가 '19.10 온두라스, 니카라과, '19.11 코스타리카, '20.1 엘살바도르, '21.3 파나마로 전체 발효되고 추가로 과테말라 역시 '24년에 발효가 기대되어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
- 아울러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EU 등 미주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의 FTA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
 - *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 간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인접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된 제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한-중미 FTA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
 - *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많이 진출한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원료 조달 등 한-중미 6개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FTA 수혜 품목)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모두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의 FTA 수혜 품목(자동차 부품, 섬유기계 및 원부자재, 화장품, 의약품 등)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
 - * KOTRA-SIECA 업무 협력 MOU 갱신('22.7) 연계 합동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FTA 활용) 중미 북부 3개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추진
 - 중미 FTA 3개국 상시 화상상담회, 공관 및 유관기관* 협력 중미 3개국 FTA 활용 세미나 및 (대행)상담회, 지방 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전문가상담 등
 - * 협력기관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 등

- (온라인) 중미 FTA 3개국 상시 화상상담회(연중/과테, 온두, 엘살)
 - * 현지 바이어 수요맞춤형 국내기업 FTA 수혜 품목 소싱 상시 지원
- (오프라인) 공관 및 유관기관* 협력 중미 3개국 FTA 활용 세미나 및 (대행)상담회 (연중/과테, 온두, 엘살)
 - * 협력기관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 등
- (온·오프라인) 지방 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전문사절단(상반기)
 - * (지방 협력) 소비재 전문 사절단 파견(강원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협력)

3-2. 중미 통합시장 관점의 마케팅사업 추진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역사적으로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미시장 통합 움직임 지속
 - 중미공동시장(CACM, '60), 중미공동관세체계(SAC, '85), 중미자유통행협정(CA-4, '06) 등
 - * (관련 기구) 중미의회(PARLACEN),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 중미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지역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3국 간 중미 북부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18.8)했으며, 중미 6개국 공통 세관 수출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DUCA⁵⁾를 구축하였음('19.5)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역통합 기류에 따라 자본 및 사업 모델의 역내 다국적화 본격화
 - 중미 지역의 전통 부호는 유통망의 다국적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 * (유통) 엘살바도르 POMA 가문, 중미 전역 쇼핑물·자동차 딜러십 보유 / (GVC) 중미국 간 원사원단 → 봉제업 수직계열화 등
- 중미 6개국은 '19.5 공통 세관 수출신고 온라인 플랫폼 DUCA를 구축, 엘살바도르 및 니카라과,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편입
 - 중미 내에서 역외 생산 재화도 자유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를 한-중미 FTA와 연계하여 FTA의 효과 극대화 가능
 - * 중미 북부 3개국 간 온라인 통관 간소화 시스템 FyDUCA⁶⁾ 도입 완료로 재화 이동 완전 자유화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미 다국적(Multilatina) 기업 대상 마케팅 협력 강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SICA 산하의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 각종 중미 통합 추진 기구 활용 사업
 - 교통각료위원회(COMTRAN), 경제통합각료위원회(COMEICO), 보건각료위원회(COMISCA) 등을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 공동 개발, 보건 분야 약품 공동 구매, 역내 무역 원활화 정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아젠다를 추진
 - * 중미 개별 국가로는 인구 및 시장이 작은 바 통합시장 관점에서 접근 필요
 - * 중미 종합 물류 인프라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Regional Mobility and Logistics)을 통해 2035년까지 지상/철도/해상/항공 운송 물류를 활성화하는 530억 달러 규모의 종합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미 전체에서 추진 중

5) 중미 단일 관세 신고서(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DUCA)

6) 중미 단일 세금 및 관세 신고서(Factura y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FyDUCA)

3-3. 경쟁력 우위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가공식품 등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품목으로 토종기업의 현지 생산, 주변국 수출 활발
 - 로컬 브랜드 제품(저가),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제품(중고가) 병행 생산하는 곳이 다수
-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내 한국산 화장품 수요 증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유통망을 통한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산 소비재 판매 확산 추세
 - 유력 현지 유통망 발굴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 교포 한인을 통한 다양한 제품 홍보 채널 구축
 - * OKF 알로에 음료, CJ Bibigo 제품류, 농심라면, LOTTE 제품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
- 무역관의 홍보 노력 속 현지인들의 자발적 구매, 판촉 움직임 활성화
 - 현지 대형 백화점, 유통센터 팝업스토어 개최, 온라인 유통망 입점·판촉을 지원하는 한편, 인플루언서 활용, 한국상품 홍보영상 공모전 등 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식료품, 화장품을 홍보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현지 유력 유통망을 활용한 현지 가공식품 및 음료시장, 화장품 등 한류 소비재 홍보를 위한 노력
 - 인플루언서, SNS 등 홍보 채널 적극 활용, 한국산 제품 수입 경험이 많은 교포 유통망 대상으로 진출 초기 인콰이어리를 집중 연결
- 유통망 연계 팝업스토어 입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개
 - 중미 최대 식품 전시회 페리아 알리멘타리아(Feria Alimentaria) 한국관 참여
 - * 식료품 화상상담 주간 운영 등 신규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연계성 강화
 - 대형·전문 유통망 연계 팝업스토어 입점,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 행사 정례화
 - * K-Beauty 화장품 특화사업 추진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병행

-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연중)
 - * 로컬 대형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망 등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신규 소비재 신규 소비재 테스트마케팅 사업(연중)
 -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 샘플 테스트 희망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3-4. 국제개발은행(MDB)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개발, 수주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미 국가는 정부 재정 부족으로 국제개발은행(MDB)을 활용하여 각종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중미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미주개발은행(IDB), 월드뱅크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CABEI가 이들 기관 집행액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20.1 CABEI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어 우리 기업들은 중미에서 IDB 프로젝트 외에도 CABE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 한국은 회원 가입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하며 정식으로 CABEI 회원국으로 승인됨
 - 한국은 자본금 총 4.5억 달러를 납입을 통해 CABEI 지분의 6.2%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역외 회원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은 지분을 국가임
 - CABEI는 개별 국가 차원의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중미 전체를 관통하는 전력망, 철도 인프라와 같은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도 추진하며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한국 정부는 CABEI에 4억 달러의 EDCF 협조융자, 3억 달러의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 크레딧 라인 설정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회원 가입을 계기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단일 기부자 신탁기금(Single Donor Trust Fund)*을 조성
 - * CABEI 내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KTF)은 프로젝트별 약 100만 달러 이하의 사전 타당성조사 등의 프로젝트를 한국기업 참가 제한 조건(Tied)으로 추진 가능한 자금

□ 진출전략

- CABEI에 조성되는 신탁기금은 보건의료, 에너지, 사업, 생산 인프라, 화물·여객 운수, 기술, 정보통신 및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사용 예정임
 - 중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필요
- IDB 개발펀드, EDCF·전대금융 활용 프로젝트 수주 집중
 - KIF자금(EDCF), 전대금융을 활용하여 역내 공급자 금융 프로젝트에 대응
 - 유망 사업 타당성조사에 기술협력사업 신탁기금을 제안, 사업 수주로 연계

- MDB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연중)
 - * Global Project Plaza(2분기), (IDB) Korea-LAC Business Summit 연계(3분기), (CABEI) MDB 프로젝트 플라자 연계(4분기)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CABEI 내 한국신탁기금(KTF) 활용 사업 ('24.6.18~20(잠정)/파나마)
 - * 기재부 원스톱수출지원단과 협력하여 한-중미 FTA 체결(예정) 중미 6개국 바이어 대상 자동차부품 및 화장품 분야 등 수출상담회 개최 추진 중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 품목명 1 | | |
|-------------|------|---|
| 건강 음료 |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 수요 급등 품목 |
| | 시장동향 | ① 주류, 탄산음료, 넥타, 생수 제품 현지 생산, 경쟁 치열 ② 탄산음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생기며 스포츠 드링크, 건강 음료 위주로 수요 증가세 |
| | 경쟁동향 | ① 멕시코, 중미 모두 생산하며 역내 교역 활발 ② PEPSI, AMBEV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③ 최근 저품질의 알로에 함유량이 허위 표기되거나 한국산 제품과 유사한 라벨을 활용한 중국산, 동남아산 알로에 음료들이 시장을 교란 중 |
| | 진출방안 | ① 알로에베라, 코코넛 등 현지 미생산 제품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② 에너지 드링크, 캔 커피 등 제품 수요가 대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음료 등 건강 음료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높음 ③ 경쟁사 제품 대비 고품질의 제품임을 강조하는 마케팅 진행 필요 |
| 품목명 2 | | |
| 중고차 및 자동차부품 | 선정사유 | ① 한국산 차량(신차·중고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 ② 특히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제품 및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수요 동반 성장 중 |
| | 시장동향 | 신차시장 기준 기아차(2위), 현대차(3위) 등 높은 한국산 선호도 지속 |
| | 경쟁동향 |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이 시장 장악 |
| | 진출방안 | ①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② 엘살바도르 FTA 발효 이후 관세 0% |
| 품목명 3 | | |
| 자동차 배터리 | 선정사유 |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 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
| | 시장동향 | 멕시코산에 이어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2위 차지 |
| | 경쟁동향 |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 브랜드 각축장 |
| | 진출방안 | ① 한-중미 FTA 발효국 우선 진출 - 엘살바도르 관세 즉시 철폐, 온두라스 10년 균등 철폐 ②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

| 품목명 4 | | |
|--------------------|------|--|
| 의약품 | 선정사유 | 높은 빈곤층 비율로 인해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가 항시 부족 |
| | 시장동향 | 공공 부문 조달시장 기준 10대 조달업체의 낙찰 규모는 평균적으로 2억 달러 내외 |
| | 경쟁동향 |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 |
| | 진출방안 | ① 천연 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고경쟁력 제품 위주 시장 진출 ② 공공 조달 시장의 경우 현지 낙찰 경험이 많은 유력 조달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 |
| 품목명 5 | | |
| 화장품 | 선정사유 | K-Beauty에 대한 여성 소비자 관심 증대 |
| | 시장동향 | ①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 유통망 확산되며 급격한 성장세 ② Siman 등에서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며 기타 Walmart, Torre 등 슈퍼체인에서 중저가 화장품 취급하고 있으나 색조 위주 |
| | 경쟁동향 | ① 현지 생산업체(Flushing)가 있으며, 페루계 화장품 기업인 Belcorp 산하 브랜드(ESICA, L'BEL, CYZONE 등) 강세 ② Mumuso, Miniso 등 한류 편승 브랜드 진출 중 |
| | 진출방안 | ①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및 벤더를 활용하되, 진출 초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투자 필요 ② 현지 보건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상이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종 서류 작성에 협조 필요 ③ '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테말라 무역관 소비재 팝업스토어, KSF사업 참여 등 |
| 품목명 6 | | |
| 보안장비 | 선정사유 | 현지 치안 불안 상황에 따른 CCTV 등 보안장비 수요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꾸준히 발생 |
| | 시장동향 | 한국과 과테말라 간 치안 교류 협정으로 인해 다양한 치안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에 현지 경찰학교도 KOICA ODA사업을 통해 건설한 바 있어 우호적인 관계 구축 |
| | 경쟁동향 | 현지 저품질의 제품들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 중 |
| | 진출방안 | 기술 심사가 요구되는 현지 경찰 등의 정부 관련 입찰 및 KOICA의 현지 치안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통한 현지 프로젝트 레퍼런스 확보 및 관련 입찰 수주 확대 전략 필요 |
| 품목명 7 | | |
| 의료기기 (진단 장비 제외) | 선정사유 | 의료기기의 경우 X-ray 등의 진단 장비를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 |
| | 시장동향 | 과테말라 병원에서는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신규 의료기기 장비 수요가 있으나 의사들이 새로운 기술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 |
| | 경쟁동향 | 유럽산 고급 의료기기와 저가 중국산 의료기기가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중저가 시장의 경우 중국산 사용 후 낮은 품질로 이를 다시 찾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 | 진출방안 | 가격 대비 고품질의 한국 의료기기를 현지 병원 및 의사에게 적극 홍보하고 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병행을 통한 우수한 최신 의료기기 도입 추진 |

| 품목명 8 | | |
|---------|------|--|
| 건축 마감재 | 선정사유 | 과테말라 내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이 높아 부유층을 위한 신축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음 |
| | 시장동향 | 현지 기업이 건축과 시공을 장악하고 있으나, 부유층을 위한 고급 건축 마감재 수요 존재 |
| | 경쟁동향 | 현재 중국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 | 진출방안 |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다양한 한국산 건설축 마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현지 건설사와의 파트너링을 통해 꾸준한 오더 수요 발굴 |
| 품목명 9 | | |
| 철강 | 선정사유 | 현지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우수한 한국 철강 제품 수출 가능성 존재 |
| | 시장동향 | 현지 수요는 높으며, 한국산 철강은 직접 수출보다는 FTA 비준이 완료된 중미 인근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경쟁동향 | 멕시코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진출방안 | 한-과테말라 FTA 협상 품목 중 철강은 일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수출보다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같은 철강을 포함한 한-중미 FTA 체결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
| 품목명 10 | | |
| 섬유 원부자재 | 선정사유 | 현지 한인을 포함한 섬유공장이 많아 관련 원자재 등의 수요 꾸준히 발생 중 |
| | 시장동향 | 봉제업 중심의 의류는 과테말라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꾸준한 섬유 원자재 수요 발생 |
| | 경쟁동향 | 현재 역내 또는 저가의 중국산 원자재 조달 중이며, 섬유기계는 고급 독일제 중심으로 사용 중 |
| | 진출방안 | 한국 원자재의 단가를 낮추는 물류와 한국산 섬유기계의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을 내세운 시장 공략 필요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 품목명 1 | | |
|----------|------|---|
| 식품 프랜차이즈 | 선정사유 | ① 교포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도입 수요 존재 ② 중미 내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이며, 외국계 브랜드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시장 |
| | 시장동향 | ① 한인 교포 소비자(5,000명)가 존재, 현지인들에게도 한류 영향으로 한식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② 외식비가 한국과 비슷한 시장으로, 중산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급 식당들이 많이 존재 |
| | 경쟁동향 | 미국 주요 브랜드(맥도날드, KFC, TACO BELL 등), 현지 자생 브랜드(Pollo Campero 등) 프랜차이즈 성업 중 |
| | 진출방안 | 현지 한식당들은 비전문가의 한인 대상 식당 중심으로, 현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된 한식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 |
| 품목명 2 | | |
| 건설 플랜트 | 선정사유 | ① 과테말라 신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 ② CABI 가입 이후 우리 기업의 CABI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대 |
| | 시장동향 | ① 인프라 개발 수요는 많지만 정부 재정 문제로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손쉽게 추진되고 있음 ② CABI, IDB 등 국제기구 차관, PPP 사업 등을 활용하여 전력통신망 구축, 항만 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함 |
| | 경쟁동향 | 과테말라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언어적인 문제로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역내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
| | 진출방안 | ① 토목공사 등이 수반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리스크 헷징 필요 ② 사전타당성조사, 감리 혹은 기자재 조달 등 건설이 아닌 부가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 |
| 품목명 3 | | |
| 콘텐츠 | 선정사유 | ① 과테말라에서도 YouTube, Netflix 등 인터내셔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고 있으며 BTS, 기생충 등 한국 문화의 아이콘들이 알려지고 있음 ②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류 동호회, 커버댄스그룹 등이 구성되며 또래집단에서 한국문화를 알고 있음 |
| | 시장동향 | <대장금>, <구르미 그린 달빛> 등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으며 '20년에는 타요, 뽀로로 등 애니메이션이 방영 |
| | 경쟁동향 | 전통적으로는 동일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스페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 다만, Netflix 등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국경의 벽을 넘는 것이 수월해지는 상황 |
| | 진출방안 | ① 현지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유통, 외국에서의 방영 이력을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음 ② 한류를 기반으로 중남미 맞춤형 교육, 문화 등 콘텐츠 개발(스페인어 더빙/자막 필수) |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구분 | 주요 사업명 | 일시/장소 |
|--------------------------------|---|----------------------|
| 한-중미 FTA 활용 진출 확대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3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 (온라인) 중미 FTA 3국 상시 화상상담회 * (오프라인) 공관 및 유관기관 협력 중미 3개국 FTA 활용 세미나 및 (대행)상담회 * (온-오프라인) 지방 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전문사절단 - SIECA 등 중미 경제통합기구 협업 FTA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 사절단, 상담회 등 개최 | 연중/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최대 섬유 전시회인 과테말라 섬유 전시회(Apparel Sourcing Show)에 한국관 참가를 통한 한국 섬유기계 및 관련 분야 기업 수출 지원 추진 | '24.5.21~23/과테말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협력 한-중미 FTA 수혜 품목 전문사절단 연계 과테말라상공회 협력 수입상담회 참가 | '24.6월/과테말라 |
| 경쟁력 우위의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 로컬 대형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망 등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신규 소비재 테스트 마케팅 사업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 샘플 테스트 희망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 연중/과테말라 |
| MDB 차관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B 차관 프로젝트 발굴·수주 지원 * GPP(2분기) * (IDB) K-LAC Business Summit(3분기) * (CABEI) MDB 프로젝트 플라자 연계 발주처 방한 유치 지원(4분기) | 연중/한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EI 내 한국신탁기금(KTF) 활용 사업 * 한-중미 FTA 체결(예정) 중미 6개국 바이어 대상 자동차부품 및 화장품 분야 등 수출상담회 개최 추진 중 | '24.6.18~20(잠정)/파나마 |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과테말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 '24.1.14 | 대통령 및 국회 정권 교체 후 신정부 임기 시작(4년제)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한-과테말라 FTA 협상 | '24 | '23년 중 정식 서명, '24년 중 국회 통과 및 발효 예상 |
| '25년 예산안 발표 | '24.8월 | |
| '25년 최저임금 발표 | '24.12월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Apparel Sourcing Show 2024 | '24.5.23~25 | 섬유 전시회 |
| FERIA ALIMENTARIA 2024 | '24.9 | 식품 전시회 |
| FERRET EXPO 2024 | '24.11 | 전기부품 전시회 |

〈작성자〉

| 연번 | 작성자 | 직책 | 소속 | Tel | Email |
|----|-----|----|----------|-----------------------------|--------------------|
| 1 | 심재상 | 관장 | 과테말라 무역관 | +502-2298-0000 (ext.101) | csshim@kotra.or.kr |
| 2 | | | 본사 000팀 | | |

2024
과테말라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